

## 엔·원화 환율의 역전과 한·일간 경쟁구도 변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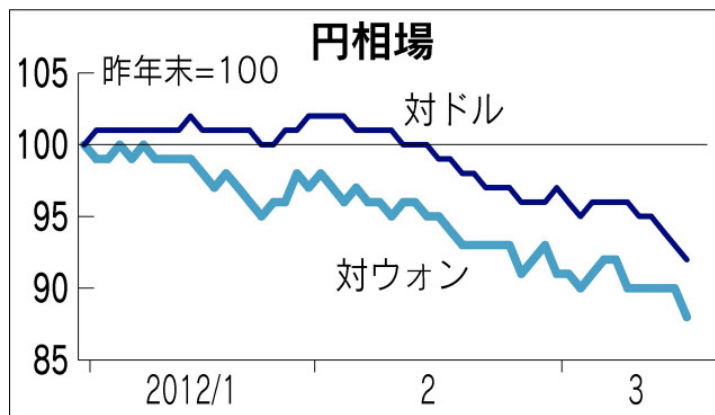
작년 말경부터 지금까지 원화에 대한 엔화 가치의 12%하락 폭은 결코 적지 않은 것으로서, 국내 기업의 대일경쟁력 특히, 자동차, 반도체 등 일본과 수출경합관계에 있는 업종의 수출경쟁력에 악영향이 예상.

중장기적으로는 엔화에 대한 원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되나, 원저 시에도 국내기업들로서는 항상 원고로의 반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, 대일 경쟁전략을 짜 나가는 것이 중요함.

### □ 엔화에 대한 원고로, 일본 업계 경쟁력 회복 기대

- 외환시장에서 달러에 더하여 우리나라 원화에 대한 엔화가치도 약화되고 있음. 작년 말부터 원화에 대한 엔화가치의 하락폭은 달러화에 대한 엔화의 가치하락폭보다 큼.
- 원화에 대한 엔화약세 추이로 자동차, 반도체 등 한·일간 경합관계에 있는 업종을 중심으로 관련 일본 업계에서 경쟁력 회복이 기대되고 있음.
- 엔화의 대미달러 환율은 15일 약 11개월만에 달러당 84엔대까지 하락. 작년 말 이후 엔저폭은 약 8%. 한편, 대원화 환율은 1원당 0.074엔대로(100엔당 1351원) 작년말 이후 12% 하락, 대미달러환율보다도 하락폭이 큼.

- 원화에 대한 엔저현상의 배경은 이제까지 원저였던 원화의 원고로의 반전임. 엔이 여타 통화에 대하여 전면적으로 엔저국면이었던 2007년에는 1원=0.13엔대까지로(100엔당 769원)엔저·원고가 진 (자료: 일본경제)



행되었으나, 리먼쇼크로 인한 금융시장의 혼란으로 안전자산인 엔화에 대한 수요가 급증, 0.06엔대까지(100엔당 1667원) 엔고·원저가 진행, 일본 업계에서는 한국기업에 대한 수출경쟁력 약화 우려가 높아짐.

## □ 주가에도 영향

- 2010년에는 0.08엔대까지(100엔당 1250원) 반전되었으나, 유럽 재정위기에 따른 신흥국시장으로부터의 자금인출 영향으로 작년 가을에는 다시 0.06엔대까지(100엔당 1667엔) 원매도세가 계속. 금년 들어 각국 중앙은행의 금융완화로 시장심리가 개선되어 원매입세로 반전.
- 원화에 대한 엔화가치의 하락세로 주식시장에서 토요타자동차와 혼다의 주가상승율이 10% 이상의 상승율을 보이고 있는데 비하여, 현대자동차 주가상승율은 4%에 머물고 있음.
- 전기·전자업계에서는 삼성전자의 주가상승율이 10%인데 비하여 소니의 주가상승율은 14%, 철강 업계에서는 포스코의 주가가 5% 하락한 반면, 신일본제철은 13%의 급상승, 일본기업으로의 자금 이동이 선명

- 휴대전화의 데이터 기억장치에 사용되는 NAND형 플래시 메모리 분야에서 세계 제 2위인 도시는 엔고·원저에 힘입은 삼성전자에 밀려 삼성전자의 세계시장점유율 40%전후보다 10%정도 낮은 30%대 전반의 시장점유율을 유지해오고 있으나, 원·엔화 환율의 역전으로 삼성과의 차이가 좁혀질 가능성이 있음.

## □ 미국시장에서 한·일간 경쟁판도 변화

- 한편, 미국시장에서도 한·일간 경쟁판도에 영향이 예상됨. 도요타 자동차의 캠리와 현대자동차의 소나타, 미국 자동차시장에서 상위다툼을 하고 있는 한·일의 주력 세단차종 분야에서 변화가 보여지고 있음.
- 최근 수년간 원저에 힘입어 소나타가 캠리를 맹추격, 작년 대지진 이후 캠리를 제쳤으나 금년 2월에는 캠리가 소나타에 17000대 차이를 뒀.
- 현재자동차는 금융위기 이후 원저를 배경으로, 미국시장에서 가격인하의 재원인 판매장려금을 대당 2500달러정도 인상하여 판매 공세에 나선 것으로 일본 업계는 보고 있음.
- 금년 1~2월 미국시장에서 판매대수(기아자동차 포함)는 전년동기 대비 23% 증가, 원저 행진이 멈추게 되는 경우 과거와 같은 대담한 가격인하는 어려울 것으로 보는 견해도(일본 자동차업계) 있음.

## □ 일본의 경쟁력 회복에는 시간·과제 소요

- 그러나 한·미 FTA의 발효로 일본이 국제경쟁력을 회복하기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과제가 많은 것으로 일본 업계는 보고 있음.
- 일본자동차공업회 회장은 최근 원화에 대한 엔저 현상에 대하여 「초초엔고가 초엔고로 되는데 불과하며 FTA면에서도 한국에 크게

뒤지고 있다」 발언

- 또 일본내 일각에서는 중장기적으로는 한·미 FTA발효가 원화에 대한 엔저효과를 보상하고도 남는다는 식의 평가와 분위기임.

## □ 시사점

- 작년 말경부터 지금까지 원화에 대한 엔화 가치의 하락폭 12%는 결코 적지 않은 것으로서, 국내 기업의 대일경쟁력 특히, 자동차, 반도체 등 일본과 수출경합관계에 있는 업종의 수출경쟁력에 악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추정
- 앞으로도 한·일 경제 및 세계경제 요인에 따라 원화의 對엔화 환율이 변동될 것이나 중장기적으로 유럽재정위기의 해결, 안전자산으로서 엔화의 지위 약화 등을 감안하면 오히려 지금보다도 엔화에 대한 원고 추이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
- 설사 그렇지 않더라도 국내기업으로서는 항상 엔저로의 반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, 대일 경쟁전략을 짜 나가는 것이 중요함

## <참고자료>

일본경제신문(2012.3.16)